[별첨2] 심의총평 보기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사업 ㅇ 회의일시 : 2017. 7. 7(금) 09:30~14:00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위원회의실
'2017년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사업'에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총 50개 단체가 지원했다. 이중에서 상위 점수를 획득한 26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지원사업의 범위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연극 38개, 무용 4개, 음악 5개, 전통예술 3개의 단체가 지원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심의위원 일동은 '2017년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사업'의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장르를 함께 토의하고 개별 채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심의 평가 기준 등이 설명된 자료와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각 심의위원들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모든 지원 서류들을 세심하게 검토했다. 본 심의 과정에서 사업 공모 시 제시된 심의기준(①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②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해당 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가 설정한 심의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지원단체는 극장의 특성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 그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ㅇ 극장의 특성화 목표가 실제 프로그램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ㅇ 예산규모는 적합하고 수익구조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가? ㅇ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의 지원은 중복사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하지 않기로 함 ㅇ 분야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고,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함 심의는 종합토론과 개별평가로 구분되어 진행되었고, 해당 분야 심의위원들은 타 분야 심의위원들에게 분야별 특성을 전달하여 분야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선정된 단체들은 열악한 극장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극장만의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존의 유명 극장뿐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극장 모두 극장만의 특성화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연간 계획이 충실하게 계획되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기획된 프로그램들 간 일관성,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살펴봤다. 또한, 상업성과 흥행성에 치우치기보다 기초예술 분야에 집중하는 곳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업취지와 각 극장의 계획 간 적합성이 부족하거나,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사업비를 신청한 경우, 출연진과 연출진에 대한 예산 배정이 과다한 경우, 공공성이 취약한 계획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다.

심의위원들의 개별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에 적합한 극장을 선정하였다. 지원 대상자들이 확정된 이후 최고득점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금의 최저선 등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한 뒤, 지원예산 안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단체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했다.

심의위원일동은 본 심의를 마치며 두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예술위원회는 선정된 사업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지원과 제재 그리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지원이 결정된 단체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주길 희망한다. 그 우수한 성과를 통해 우리 극장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전성이 다소나마 강화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아니라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 극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7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사업 심의위원 일동